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찰의 거울을 지니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느냐! 그것은 공지영이 아니라 백담공주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울은 페미니즘 소설과 사생활, 그리고 공주병이 결합돼 빛어낸 ‘공지영=팔모파탈’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최근 나온 문예지인 ‘작가와 비평’ 7호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평단으로부터는 싸늘한 대접을 받아온 소설가 공지영(44·사진)에 대한 세 편의 비평을 실고 있다. 그 중에 문학평론가 최강민(41)은 팔모파탈과 공주병의 화려한 만남이란 제목의 ‘공지영론’에서 그의 소설들을 관통하는 본질적 측면과 신드롬의 요인에 대해 짚고 있다.



문학평론가 최강민은, 공지영이 보여주는 자기인민의 미학은 독자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주병에 걸린 자신을 위한 나르시시즘의 연금술이라고 지적한다.

“후일담소설은 ‘공지영 공주병’의 시발점”

● 평론가 최강민, ‘작가와 비평’ 7호서 ‘공지영 신드롬’ 분석

적당한 고민·적당한 오락의 욕망에 기반 페미니즘 깃발... 과잉된 주체의식의 산물

● 권지와 평론 형식을 섞은 이 글에서 최씨는 공지영 문학에는 크게 후일담문학(운동권문학)과 페미니즘문학, 중간문학(대중문학)의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본다. 더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1989) 등 공씨의 소설 상당수는 후일담문학이다. 이들 소설들은 1980년대 문학의 계급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혁명적 낭만주의를 계승한다. 공씨는 낭만적 환상을 정당화하고 변혁적 열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특권화시키고, 자신의 시대에 대한 부채감과 열등감을 해소한다. 그의 진보성의 이면에는 타인에게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으며, 따라서 ‘후일담소설은 공지영의 공주병이 생성 발전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 평론가 최강민, ‘작가와 비평’ 7호서 ‘공지영 신드롬’ 분석

적당한 고민·적당한 오락의 욕망에 기반 페미니즘 깃발... 과잉된 주체의식의 산물

축구하면서 안정된 일상으로 원대복귀하게 하려는, 그 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독자들에게 위인의 서사를 제공하며 그의 소설을 찾도록 한다. ‘공속적인 복고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후일담소설은 역사적 전망이 사라진 1990년대에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38세대들의 집단적 욕망에 부응했으며, ‘약간의 반성’과 함께 카타르시스인 위인의 서사를 제공한다. 1990년대 초반 공지영은 페미니즘의 깃발을

에 빼뜨리며, 더 나아가 선민의식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공지영의 신드롬은 적당한 고민과 적당한 오락을 욕망하는 중산층 여성 내지 독자들의 욕망에 기반한다고 본다. 공씨는 체험과 취재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을 발동하는 작가로, 대중들이 욕망하는 지점을 본능적으로 잡아내는 ‘발 빠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은 본격문학이란 틀에 갇혀 대중들의 성감대를 찾아내지 못하는 대다수 작가들과 달리, 공지영 신드롬을 만들어 내면서 ‘중간문학’의 영역을 넓히고 ‘고급문학-본격문학’의 틀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씨는 자신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합리화하는 나르시시즘의 도구로 소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공씨의 소설이 좀더 성장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전주고 평신도 단체인 꾸르실료가 그동안의 전부를 깨고 대사회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장인 심재기(69·사진) 전 국립국어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꾸르실료가 도입된 지 40주년을 맞아 복음화 실천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복음화를 위한 단기교육”, 짧은 시간에 갖는 회심(回心) 여행 등을 뜻하는 꾸르실료 운동은 1940년대 내전과 군사독재, 세계대전 등으로 폐허가 된 스페인에서 신앙회복운동의 하나로 시작됐다. 지중해의 마요르카 섬에서 스페인의 수호성인인 야고브 성인의 무덤이 있는 대서양 연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도보 순례를 떠나기 전에 가졌던 3박4일의 단기교육이 원형이다. 이 순례의 길은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한국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복음화 운동 적극 펼치겠다”

심재기 회장... 내달 2일까지 전국 도보순례 릴레이

소설 ‘레제’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83년부터 꾸르실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심회장은 “교리 강의, 토론, 묵상 등으로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꾸르실료는 신앙인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을 준다”면서 “한국의 가톨릭 평신도 지도자치고 꾸르실료를 거치지 않은 이가 별로 없을 정

도”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교육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돼 온 측면이 없지 않으나,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의 모델이 되는 등 정부와 여러 종교·단기교육의 전범이 됐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꾸르실료 한국도입 40주년을 기념, 지난달 2일부터 10월2



일까지 40일 일정으로 전국 도보순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고 교구별 꾸르실료 대표자 30여명과 함께 제주 활사령 순교성지에서 시작해 성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충남 당진군 숲외 등을 거쳐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 회장은 “이제 한국 꾸르실리스타(꾸르실료를 가진 사람)도 15만여명에 이른다”며 “도보성지순례가 끝난 뒤 10월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신앙심을 새롭게 다지는 전국 올드파(단합대회)를 4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종교문화연구원 연속 강좌

한국교회인문센터와 종교문화연구원은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무궁무진한 종교의 세계를 알아보는 연속 강좌를 시작했다. 13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원광교회에서 열리는 이 강좌에는 이슬람학을 전공한 박원도(이화여대 강사)씨가 경주신라학의 메카, 성남은 춤의 메카-이슬람에서 메카리는 말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것을 비롯, 최태광(종교학·감신대), 전병술(동양철학·건국대), 오문환(정치학·경희대), 원용성(불교학·동국대), 오지섭(종교학·서강대), 최준식(종교학·이화여대) 교수 등이 기독교와 유교, 민족종교, 불교 등의 핵심용어로 이들 종교와 한국인의 종교성을 등을 강의한다.

관련 13일 성공회 박대식(신약성서학) 신부가 ‘안정환은 김월은에 어렴풋, 백남준은 예언자-이런양과 예언자를 통해 본 그리스도’란 주제로 진행한 첫 강좌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시민과 학자들이 참여, 기독교 성경 속의 우리말 용어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불광사, 창립 33주년 기념강연

서울 송파구 장림의 도심 사찰 불광사는 창립 33주년을 기념,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신하남원인(취재)으로 여성과 함께 ‘가정과 불교’를 주제로 한 연속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다들달 10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불광사 불광 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이 강좌에서는 김홍서 전 덕성여대총장, 최훈동 한해정신병원장 등이 강사로 참여, 가정의 의미와 부부 및 자녀 관계 등을 재조명한다. 또 가족간 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과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정문화 만들기도 모색한다. 1974년 9월 광덕스님을 창립한 불광회를 모태로 출발한 불광사는 창립 30여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사찰로 성장했다.

경북 청량사 ‘산사음악회’

경북 봉화군 청량사(주지 지현스님)는 다음달 6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장사의 날’의 밤이’란 제목으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사당을 비롯해 정제열의 재즈밴드, 아가베그림 솔리스트, 재즈뮤지션 최선배, 애급 연주자 하규은 등이 출연한다. 청량사는 2001년 이후 매년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다. 054-672-1446

대교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권우스님)는 다음달 26-31일 베트남 호찌민 국립극장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를 시연한다. 베트남에서 영산재를 시연하는 것은 처음으로 বলে 보유자 김구영씨 등 3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영산재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장면을 의례화한 것으로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전통의 식인 4제 가운데 하나이다. 02-392-3007